

1990년대 절충적 기능주의 패션의 미적 가치

하 지 수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

Aesthetic Values of Eclectic Functionalist Fashion Design in the 1990s

Ji-Soo Ha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2002. 6. 4 투고)

ABSTRACT

The research has the aim of defin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functionalist fashion design in the 1990s by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functionalism in the sociocultural contexts. Giving careful consideration to functionalist fashion design in the 1990s makes it possible to foresee the way of fashion design to meet the needs of the moderns and men of the future world. To obtain the purposes, documentary study and demonstrative study with fashion photographs have been executed.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unctionalism in the 1990s has been developed in different ways from the analogies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t doesn't belong to an analogy but has the fused characteristics. It can be classified into techno functionalism influenced by new technology, pure functionalism related to minimalism, casual functionalism for those who are crazy about the speed and sports and enjoy the freedom and comfort, and symbolic functionalism. Mechanical analogy has been developed into techno functionalism. Pure functionalism has come from the blend of mechanical and moral analogy, casual functionalism from mechanical, organic and moral analogy, and symbolic functionalism from organic and moral analogy.

Since fashion design has much closer relation to human body and movements, it has been expressed considering a division of men and women and the places and times for the designs more than other designs. More casual manners of formal wear are distinct elements in functionalist fashion design in the 1990s.

The 20th century general cultural phenomena including post modernism can be explained by eclectic functionalism. Functionalism considering practical and conceptional functions will continue and techno functionalism and casual functionalism in future fashion design will be expressed more strongly with new technology and casual trends of life style.

Key words : eclectic functionalism(절충적 기능주의), techno functionalism(테크노 기능주의),
pure functionalism(순수 기능주의), casual functionalism(캐주얼 기능주의),
symbolic functionalism(상징적 기능주의)

I. 서론

디자인의 미적인 근원을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능성이다. 왜냐하면 모든 디자인의 근본적인 목적은 만들어진 물건을 통해 인간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만일 디자인의 행위와 디자인된 물건에서 기능성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이미 디자인이 아니다. 오늘날의 새로운 기술 변화는 디자인에서 기능의 모습을 변모시키고 있다. 20세기초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소비자들은 새로 출현한 기능과 그 신기한 모습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패션디자인에 있어서도 다양한 용도를 가진 의복이 유행하여 지퍼나 끈으로 바지, 소매의 길이와 폭을 조정하고, 구김이 가지 않는 이브닝 드레스 등 실용적인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다. Viladas¹⁾는 1990년대 말의 이러한 디자인 경향을 한 마디로 기능적 경향(functional bang)으로 특징지었다.

기능이란 어떤 활동 분야에서 그 구성 성분이 하는 작용으로,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하는 바가 다양하다. 협의로는 유용성, 합목적성, 편리와 관련되는 구조상의 명확한 표현인 물리적 기능만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까지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기능의 측면에서 다양한 소비계층을 끌고루 만족시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디자인은 모던 디자인이 추구했던 생산 원리보다는 삶의 의미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오늘날의 디자인은 이성과 감성을 절충(blend), 융합(fusion) 시키는 디자인 경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초 기계 생산 시대에는 기능의 분화에 대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양상을 띠지 않았었다. 그 당시에는 기계생산의 한계성이 확실했으며 사회도 비교적 단순했기 때문에 디자인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면 대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기능은 형태를 낳고, 기능적인 형태는 아름답다는 말은 20세기 초 기능주의를 함축성 있게 표현한 말인데 여기서 기능이란 개념적인 기능이 아닌 실제적인 기능만을 의미하는 경향이 크다.²⁾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능의 의미 확장에 주목하고, 20세기 초 디자인에 표현되는 기능주의와 1990년대 다시 등장한 기능주의의 내적 의미에 차이가 있으리라 판단하여 1990년대 기능주의 회귀 현상으로 나타나는 패션디자인이 어떠한 조형성을 통하여 이 변화된 내적 의미를 표출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1990년대 디자인에서 다시 강하게 기능주의가 부각되는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찰하고 그 기능주의의 특수성을 20세기초와 비교하여 구별짓고자 하였으며, 특히 1990년대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1990년대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을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내적 가치와 조형성을 건축 및 제품디자인과의 비교를 통해 고찰하기 위해 문헌적 연구와 사례 연구³⁾⁴⁾를 병행하였다. 첫째, 20세기초와 1990년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기능주의의 내적 의미를 문헌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둘째 1990년대 나타나는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분석하였다. 이때 패션디자인 사례와 함께 건축 및 제품디자인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기능주의는 현대 미술에서부터 현대 음악에 이르는 모든 예술 영역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건축 및 제품디자인은 패션디자인과 더불어 인간의 신체를 보호하고 더욱 아름답게 하는 기능을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도와주는 기능을 하므로, 이 두

디자인 영역에 대한 고찰은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건축디자인은 기능주의가 최초로 강하게 부각된 디자인 영역이며, 살기 위한 주거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하여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II. 20세기 기능주의에 대한 고찰

1. 기능주의에 관한 유추

기능주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철학자 Socrates, Plato, Aristotle, 그리고 건축가 M. Vitruvius로 이어져 중세의 저술,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바로크 시대의 과학 및 회의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문들과 저술에서 발견된다. 고대 그리스인은 사색적인 합리주의 정신에서 미(美)라는 문제를 취급했던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Xenophon의 'Socrates의 추억(Memorabilia)'에서 판단을 해본다면 소크라테스는 건축에 관해 엄격한 기능주의적 입장을 지니고 있다.⁵⁾ 그는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유용한 것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함으로써 기능주의 예술에 도덕적 측면을 도입하고 있다. Socrates는 공예에서는 물론 건축과 관련하여 아름다운 것과 유용한 것을 동일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소유주가 어느 계절에나 유쾌한 도피처를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주택이 아마도 가장 쾌적하며 가장 아름다운 듯하다. 집을 꾸미는 그림이나 장식은 그것들이 제공하는 즐거움 그 이상을 우리로부터 박탈해 가고 있다"⁶⁾고 하여, 장식의 불필요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Plato의 미에 대한 개념은 Socrates의 단순하고 기능적이고 상대적인 개념과는 동떨어진 것이지만, 그의 저서 '대화'에서 미와 도덕성 사이의 유추가 깊게 추구되어 기능주의를 반영하고 있는데, 유용성이나 적합성을 아름다운 사물과 동일시하고 있다. 로마의 건축가 M. Vitruvius는 건축을 "내구성,

편리함, 그리고 미"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있으며⁷⁾ Gaius Plinius는 디자인과 제작의 완전함은 재료의 본질적 가치보다 더 중요하며, 단순성이라는 성질은 예술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⁸⁾이라 하였다. 중세는 물론 르네상스(Renaissance) 인문주의와 바로크(Baroque) 과학 및 회의론에서도 기능주의에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부여하는 논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L. B. Alberti는 그의 저서 '건축10서(De Re Aedificatoria)'에서 "건축은 모든 면에서 인류에게 가장 편리한 것이어야 하며, 건물에서 가능성이 배제된다면 실제 사용보다는 그저 바라보기에만 즐거운 대상이 될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건물이 계획성 있게 배치되고 정확하게 마무리된다면 모든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최대의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다"⁹⁾라고 하였다.

그러나 18세기를 지나면서 모든 건물과 가구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성을 필요로 하는 물품들도 응용미술이라는 개념으로 제작되었고, 실질적인 제품의 질보다는 표면의 장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실용적 기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러한 실제적 기능에 대한 요구가 19세기말 등장하는 기능주의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1920년대에 접어들어 Le Corbusier를 위시한 많은 건축가들이 엔지니어의 작업과 기계를 상징적인 영감의 원천으로 볼뿐만 아니라 빌딩 건축에서 이룩된 기술적 진보를 자신들의 새로운 미학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¹⁰⁾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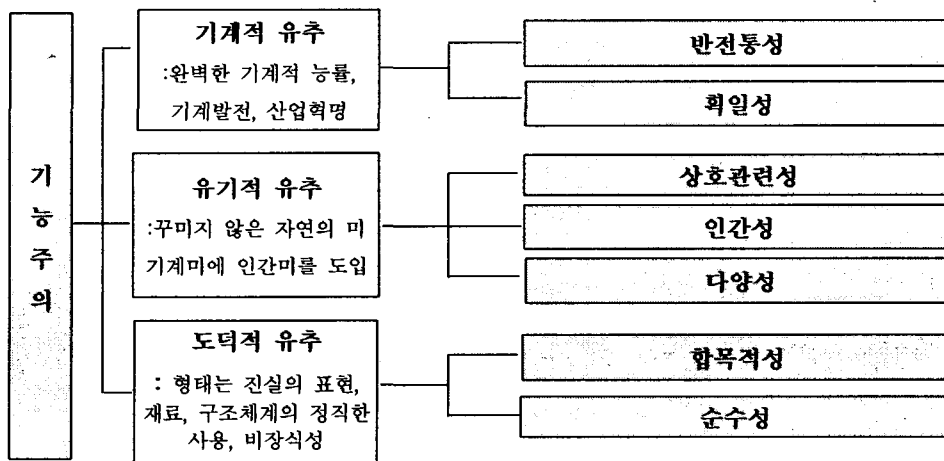
이와 같이 다양한 학문에서 다양한 의미로 발견, 적용되어 온 기능주의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이 기능주의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펼치는데 있어 유추와 은유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세가지로 분류, 통합될 수 있다. 즉, 기계적 유추(mechanical analogy), 유기적 유추(organic analogy), 도덕적 유추(moral analogy)가 그것이다.¹¹⁾ 기계적 유추는 미, 또는 조형적 완전성이란 가장 완벽한 기계적 능률에 그 기본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바탕을 기계 미학에 두고 있으며,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재료의 등장과 이에 따른 과거로부터의 단절

이라는 반전통성과 대량 생산의 시작과 이로 인한 제품의 획일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유기적 유추는 자연의 미와 그 완벽성에 대한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건축 작품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간주하여 이 안에서 모든 부분은 그 구조와 기능과 동일한 리듬을 따라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유기적 유추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적 의미는 안이 곧 밖이 되는 열린 구조의 개념이나 전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이 전체적 형태나 구조와 동일한 리듬을 가져야 한다는 상호관련성, 자연적 요소를 중시하여 자연의 형을 디자인에 적용시켜 차갑고 비인간적인 기계미에 따뜻한 인간적인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인 인간성, 그리고 건축에 있어서 정신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개인적인 취향을 고려하는 경향으로 기계적 유추의 획일성과 어느 정도는 상반되는 개념인 다양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기계적 유추와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엄연히 기능주의 미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자연을 중시하지만 다분히 진화론과 같은 과학적 사고와 연루된 개념이다. 자연을 아름답게 보는 이유는 자연 자체가 그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갖기 때문이라는 기능주의를 전제로 한다. 도덕적 유추는 건축은 사람의 도덕적 혹은 윤리적 이상을 반영하고 그것에 공헌해야만 한다는 입장으로, 형태는 그것이 보이는 그대로 이어야 하며 건물은 그 목적과 시대의 진실된 표현이

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형물은 디자인을 통해 목적에 적합한, 진실한 표현되어야 한다는 합목적성과 불필요한 장식 없이 외형이 그 구조와 일치하여 재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순수성이라는 내적 의미를 표출한다. 그림1로 20세기 기능주의 디자인의 내적 의미를 정리할 수 있다.¹²⁾

2. 1990년대 사회 문화적 변화와 절충적 기능주의

20세기 초 기능주의는 상당수의 모던 건축의 요구를 만족시켰으나, 상징적 내용을 부정하고 건축적 유형과 기념비만을 강조하게 되어서 많은 학자들과 디자이너들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문고리는 문을 여는 수단일 뿐 아니라 문을 열기 위한 초대라는 상징적이며 다원적인 시각이 제시되기 시작했으며, 디자인에서 형태-기능의 문제는 20세기 후반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1970년대를 지나 소비와 대중 문화, 페미니즘(feminism), 컴퓨터화 된 정보사회에서 특정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반응으로서 '세기말 디자인'은 '기능적 순수함'이라는 이념을 내세운 기능주의 디자인이 추구했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산원리보다는 '삶의 의미'를 더욱 중요한 원리로 간주하였으며, 오늘날의 기술적 변화 역시 디자인의 모습을 변모시키고



<그림 1> 20세기 기능주의 디자인의 내적 의미

있다.

20세기초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소비자들은 새로 출현한 기능과 그 신기한 모습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미세 전자 공학의 발달,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의 출현과 전자 제품의 소형화는 종래의 사물이 지닌 기계적 구성 방식을 '비물질화'시켰다. 예컨대 과거 자전거와 같은 사물에서는 물리적 속성이 명확하게 기계적으로 드러났던 것과 달리 최근의 전자제품에서는 작동의 방식이나 원리, 속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인공 지능이 전자제품에 부여됨에 따라서 인간이 사물과 이미지에 반응하고 학습하는 인지적 과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¹³⁾ 기술변화에 따른 인지적 문제와 함께 신소재의 출현은 디자이너들이 생각해 왔던 기존 재료들에 대한 상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제 디자인은 재사용 가능하고, 천연적이고, 환경상 안전하고 친숙하게 생산되어 궁극적으로는 인간 삶의 질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응답해야만 하는 때가 온 것이다. 최근의 기능주의는 20세기 초 단순히 기계미학에 의존했던 기능주의와는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단순히 기계만을 중시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중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종래 사물의 형식성의 변화와 기능과 형태 표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기 시작하여, 이는 기계적 유추, 유기적 유추 또한 도덕적 유추 모두가 함께 융합된 새로운 절충적 유추라는 새로운 개념의 기능주의를 등장시켰다.

새로운 기술, 뉴 테크놀로지의 끊임없는 발전과 개발은 디자인의 세계의 새로운 조형미를 소개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1990년대의 제품 및 건축디자인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소재와 형태에서 영감을 받고 영향받아 과거의 전통과는 단절된 전혀 새로운 디자인의 장을 펼치고 있다. 전자 테크놀로지의 발전 속에서 "새로운 기능"에 대해 주목하게 되고 이의 중요성은 현대 문화에 부정할 수 없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는 20세기 초 기능주의에서 강하게 나타난 기계적 유추의 연장으로서 1990년대 절충적 기능

주의에서 '테크노성(techno functionalism)'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계적 유추, 유기적 유추, 도덕적 유추의 절충된 개념인 '일상성(casual functionalism)'의 개념 또한 새로이 등장하는데, 현대인들의 스포츠와 스피드를 즐기며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편안한 일상을 추구하는 성향을 강하게 표현한다. 또한 20세기 초 기능주의에서 강하게 나타났던 기계적 유추의 획일성과 도덕적 유추의 순수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조형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미니멀리즘적 특성으로, '순수성(pure functionalism)'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미세전자공학의 발달과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의 출현은 전자제품을 소형화 시켰으며 전자제품의 작동의 방식이나 속성이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매끄럽고 전혀 장식적 없는 외형적 특성을 갖는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마을이 되는 지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구화는 교통수단의 발달, 정보통신 기간시설의 진보로 인해 더욱 가속화된다. 범세계적인 미디어 혁명을 통해 오늘날 소비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고방식이나 소비패턴에서 매우 유사한 태도와 취향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가는 문화 현상의 예는 젓가락과 가라오케 술집, 축구, 서구식 비즈니스 정장, 야구모자 거꾸로 쓰기 등 수없이 많다.¹⁴⁾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러한 지구화와 중국 문화개방의 영향으로 동양적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단순히 디자인이나 예술품의 외적 조형미 뿐 아니라 풍수지리나 선 등의 정신적인 측면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 대표적으로 쯐(Zen)¹⁵⁾ 스타일의 다이어트와 생활방식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1990년대 디자인에서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경향과 함께 단지 실용적 혹은 실제적인 기능만을 위해서가 아닌 '기능적'임을 상징하기 위해 기능을 일부러 과장해서 내세우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하여, 기능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디테일은 오직 장식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기능적'인 모습을 빌어서 기능성과 장식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디자인 경향이 자

주 나타나는데, 이를 '상징성(symbolic functionalism)'으로 정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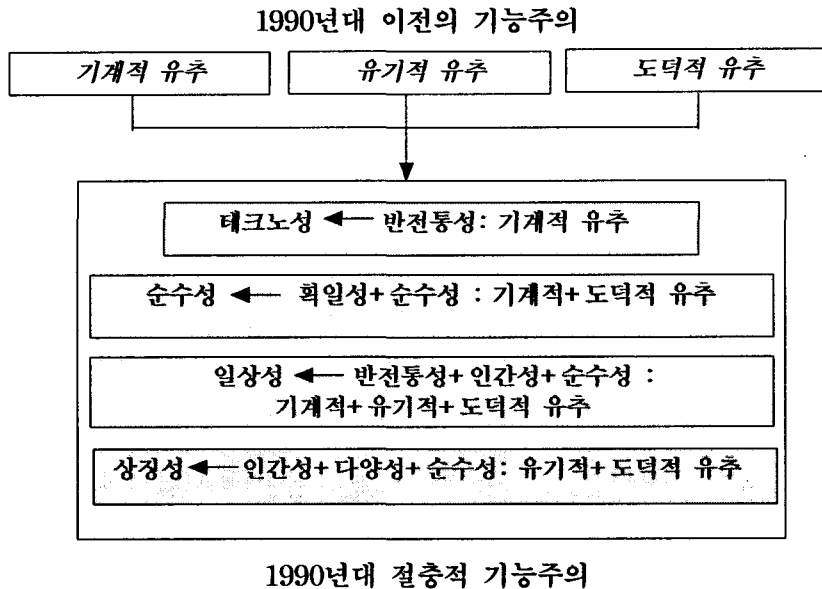
1990년대 기능주의는 기계적 유추, 유기적 유추, 도덕적 유추 중 어느 한 개념에 예속되지 않고 20세기 전반의 기능주의의 기본적 특성을 유지면서 조금은 변질된 인자와 부가된 인자를 갖는 새로운 절충적 기능주의이다. 테크노성은 기계적 유추의 연장으로, 순수성은 기계적 유추의 확일성과 도덕적 유추의 순수성의 융합으로, 일상성은 유기적 유추의 인간성과 다양성의 연장으로, 또한 도덕적 유추의 순수성의 변화된 개념으로, 상징성은 유기적 유추의 다양성과 도덕적 유추의 합목적성과 순수성의 변화된 융합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의 기능주의는 과거와 비교하여 더욱 다원화되며, 기계적 유추, 유기적 유추 그리고 도덕적 유추 사이의 명확한 경계가 무너져 각각의 유추들이 혼합, 절충, 융합된다. 그림2는 기능주의 내적 의미의 변화와 관계를 설명한다.

Ⅲ. 1990년대 절충적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의 내적 의미와 조형성

1990년대 패션디자인에서 절충적 기능주의의 테크노성, 일상성, 순수성, 상징성이 어떠한 조형적 특성을 가지고 표현되는지 건축 및 제품디자인과 함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절충적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을 살펴보면 있어서 테크노성을 강하게 내는 경향을 테크노 기능주의, 순수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경향을 순수 기능주의, 일상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경향에 대해서 캐주얼 기능주의, 그리고 상징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경향을 상징적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으로 분류하였다.

1. 테크노 기능주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정보기술과 컴퓨터,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그림 등의 시각매체, 그리고 스포츠가 결합하여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



<그림 2> 1990년대 절충적 기능주의의 내적 의미

는 패션 디자이너에게 미래지향적 주제를 제공한다. 1990년대 절충적 기능주의의 한 특성으로 나타나는 테크노성은 기능과 형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며, 디자인 형식에 증가된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현대인의 생활양식이 과거와는 다른 만큼 현대인이 필요로 하는 복식의 형태도 과거와 다르다. 관리의 편리성을 강조하는 복식이 현대사회에 강하게 나타나게 된 데에는 산업화, 부의 확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고 방식의 팽배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성공하며, 생존하기 위해서 의복 관리에 소비되는 시간마저 줄이는 방향으로 의복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이동과 활동이 증가하는 생활 패턴으로 인해 과거와 같이 관리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의복은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섬유 산업계는 합성섬유의 개발을 비롯하여 수지가공, 염색 기술의 향상, 직물의 강도 및 형태 안정성의 증가, 스트레치, 냄새를 없애는 섬유 등 팔목할 만한 기술의 발전을 이룩하여 관리에 편리한 의복을 대량으로 공급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테크노 기능주의 디자인의 발전 뒤에는 팔목할 만한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 관리의 편리성에 대한 요구는 고도 산업사회가 되면서 더욱 강해져 세탁 후 손질할 필요가 없는 워시 앤드 웨어(wash and wear), 구깃구깃한 상태가 멋져 보이는 유행 스타일 등을 거쳐 일회용 의복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게 성공적인 분야는 바로 스트레치 직물 분야이다. 스트레치는 그 자체의 다양한 종류의 변화무쌍한 특성과 함께 스포츠웨어, 캐주얼웨어 뿐 아니라 최근에는 정장류, 남성복에 이르기까지 그 사용범위와 미적 표현이 크게 증가되고 다양해졌다. 스트레치의 미는 기능적이고 편안하면서도 직물자체의 유동적인 특성과 함께 현대미에 새로운 개념을 더하고 있다. 스트레치는 디자인 구성 요소들에서 보다 작은(적은) 개념을 낳았는데, 즉, 형이 더욱 좁아지고 사이즈가 작아졌으며, 다트가 없어지고 구성선의 수가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공정이 줄어들고 가격이 낮아졌다. 또한 의복이 그 자체로 편안하고 자유로우며, 보편적이며 미래적인 성향을 띤다<사진 1>.¹⁶⁾



<사진 1> 스트레치의 미
Vogue, September 1994, p.573

획기적인 보온성과 안락함을 갖는 합성섬유의 하나로 스포츠를 위한 기능적 필요에 의해 개발된 플리스¹⁷⁾를 들 수 있는데, 플리스는 패션디자인에서 크게 유행되어 갭(Gap)은 1999년 겨울 테크노 베스트: Vest for Everybody'라는 슬로건 아래 플리스 조끼의 대대적 판촉을 전개했다. 고어텍스, 벨크로(Velcro), 케블라(Kevlar: 우주복과 우주선 재료), PTFE(표면마찰이 거의 없는 재료) 등, 절연은 물론 숨도 쉴 수 있는 직물은 스포츠 기구 디자인 뿐아니라 부속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최근 일본 직물 제조사는 체온변화에 따라 색이 변하거나 신체 활동에 따라 향기를 내는, 혹은 비타민을 함유한 지능(intelligent) 섬유를 개발했다. 이러한 새로운 테크노 섬유들은 스포츠웨어의 기능성 면에서는 물론 패션 디자인의 심미성 면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 가고 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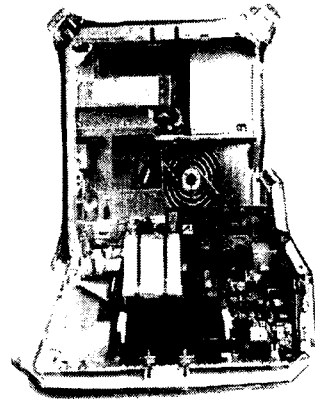
1990년대 유행하는 미래지향적 테크노 기능주의 룩은 자동차 경주, 모터사이클 등의 스피드 경주나 롤러 블레이드 등의 청소년의 새로운 스포츠를 주제로 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네오프린(neoprene), 라이크라, 네트 직물, 낙하산용 직물 등 스포츠 관련 직물을 사용하며 인체공학과 관련된 테크노 스포츠 디자인을 패션에 적용시킨다. 스니커 뿐아니

라 남녀 공용의 투박한 스타일인 여름용 샌들도 기능주의 패션의 대표적 신발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 M. Prada는 '미래의 구현(Envisioning the future)'이라는 주제로 하이테크 고무 샌들을, Evan-Picone은 인체공학 디자인의 샌들을, 나인 웨스트(9 west)는 '테크 캔버스(tech canvas)' 샌들을 디자인했다. Valerie Steele⁹⁾은 스포츠의 발달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스니커를 즐겨 신는 도시인을 '테크노 도시 전사(techno urban warriors)'들이라 했다.

테크노 기능주의의 패션디자인과 제품디자인은 조형적으로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는데, 특히 형과 선에 있어서 모호하거나 복잡한 선이 아닌 면을 가르고 공간을 구분하는 명확한 선과 면의 사용이라는 점, 색에 있어서 주로 무채색의 사용과 금속성 색상의 사용에서 또한 신소재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20세기 초기 기계적 유추의 기능주의에서 반전통성과 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건축 제품디자인에서는 순수한 형태, 표준화된 형태, 정확한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테크노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에서 또한 직사각형을 강조하는 직선적 실루엣, 튜블라 실루엣, 날씬한 인체를 표현하는 실루엣이 사용되었다. 건축 및 제품디자인에서 기계미학을 중시하여 기계에 의해 생산되는 사각형, 원, 삼각형을 특징적으로 사용한 것과 패션디자인에서 직사각형을 강조하는 경향은 서로 공통된 듯이 보인다. <사진 2>는 Givenchy의 디자인으로 고무소재의 스트레치성이 있는 신소재에 컴퓨터 칩(computer chip)을 나타내는 붉은 색 패턴을 애플리케(applique)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 패션디자인을 애플사의 전문가용 컴퓨터인 Power Mac G4의 디자인<사진3>과 비교할 수 있다. 이 패션디자인과 제품디자인은 모두 전체적인 형은 단순하고 직선적이며, 왜곡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진2에 있어서도 의복 내에 절개선이 거의 없으며, 내부적인 형인 칼라도 스탠딩(standing) 칼라로 직사각형의 형태를 취한다. 미세한 컴퓨터 칩 형태의 애플리케 이외에는 전체 의복의 형을 방해하는 절개선이나 구성선이 거의 없다. 또한 <사



<사진 2> Givenchy의 컴퓨터 칩을 이용한 디자인
Bazaar, September 1999, p.37



<사진 3> 애플사의 전문가용 컴퓨터 디자인
Design, 2000년 2월, p.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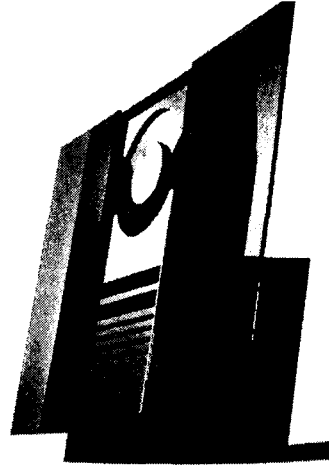
진 3>의 컴퓨터는 투명한 외관으로 그 안의 자세한 내부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디자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Givenchy의 디자인은 애플리케를 사용하여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다. 기계적 유추를 표현하는 20세기초의 기능주의 건축 디자인에서 그 기계적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특성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디자인은 표준화와

교환 가능성을 암시하는 컴퓨터 칩을 사용하여 미세 전자 공학의 발달로 특징지어지는 1990년대의 테크노 기능주의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바탕색으로는 주로 무채색에 가까운 어두운 남색과 투명한 색을 사용하고 그 위에 붉은 색으로 액센트를 주었으며, 제품디자인에서는 원색으로 액센트를 주고 있다. 재질에 있어서도 두 디자인은 유사성을 보이는데, 인공 세라믹과 합성수지, 플라스틱류, 스트레치성이 강한 인조 섬유 등 신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 4> 테크노 기능주의 디자인,
Vogue, February 1992, p.279

<사진 4>의 1992년대의 패션디자인과 <사진 5>의 B & O사의 Beolab 오디오 디자인은 한눈에 그 색과 재료의 사용에서 매우 유사한 조형성을 나타낸다. 1990년대의 미세 전자 공학은 제품의 크기와 부피에 대한 종래의 개념을 더욱 흔들어 놓았으며 전자제품은 보다 소형화되고 얇아질 것이며, 신소재의 출현으로 종래의 생산 방식에 적합했던 디자인의 형식성에 더욱 증가된 자유가 허용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직물의 개발은 20세기 패션 디자인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신축성이 뛰어난 스트레치사와 스판덱스의 개발은 몸에 밀착되어 몸매를 드러내는 대담한 의복의 유행을 가져왔다. 두 디자인 모두 형에



<사진 5> B&O사의 Beolab 오디오
Design, 2000년 2월, p.76

있어서 그 부피의 최소화라는 점에서 강한 유사성을 가지며, 패션디자인은 형에 있어서 인체의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선을 사용했으나 이에 비해, 오디오 디자인은 기하학적인 형태인 사각형, 원을 그 기본적이고 특징적 형으로 가진다. 색은 차갑고 빛나는 금속의 색과 검은색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재질은 금속과 스트레치 직물, 금속과 플라스틱 등 신소재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2. 순수 기능주의

20세기 초 기능주의 디자인에서 기술의 발전과 산업혁명으로 인한 공장에서의 대량생산과 표준화의 결과로 나타난 획일성은 이윤의 극대화와 경제적 효율성에 목표를 둔 생산 방식에서 유래하여 생산의 단가를 높이는 불필요한 공정은 제거하고 구체적으로 정확성, 형태, 비율, 선에 충실한 특성을 갖는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과다한 장식을 제거하고 실제적 기능에 대한 간절한 요구에서 발생된 순수성이 건축에서 두드러진 특성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1990년대 출현한 고도 정보화 사회로까지 곧장 이어져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된다.

1990년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의 순수성은 최근의 다양한 디자인 경향 중 미니멀리즘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기능주의의 특성이다. 이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순수성을 나타내는 디자인은 표현을 최소한도로 억제하며, 작품의 색채·형태·구성을 극히 단순화하여 기본적 요소로까지 환원해간다. 현실공간에 있는 입체작품에서 이 경향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정사각형과 정육면체 등의 단순한 형태에 일정 시스템을 채용, 동일 단위의 반복에 의한 연속체로 공간 전체를 구성하는 등, 작품의 규모가 크고 극히 모노톤적인 외관을 나타내 보인다.

조형예술에서 미니멀리즘은 최소한의 조형수단과 최소한의 제작과정을 거쳐 단순하고 절제된 표현을 함으로써 대상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예술사조이다. 따라서 미니멀리즘은 어떤 재현적 요소나 장식적 성격으로부터 벗어난 순수한 오브제로서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이며 순수주의의 표명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니멀리즘에서의 최소표현이란 단순함, 명료함 그리고 비관계적 구성을 통한 무표정, 무감각함 등의 조형성을 창출함으로써 표현의 절제 즉 표현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⁰⁾

Donna Karan, Jil Sander, Calvin Klein과 같은 디자이너들이 미니멀리즘의 대표적 패션 디자이너들이다. 이들의 작품은 극도의 미니멀리즘적 형태로 보이지만 인체의 구조적인 측면을 증시한 다양한 다트의 사용과 하이-테크놀로지의 합성섬유를 자유롭게 구성하고 있다. D. Karan은 신체를 구속하는 의복에서 여성을 해방시켰으며, 불필요한 장식을 제거하여 기능성과 다목적성을 실현하였다.²¹⁾ 불필요한 직물을 제거한 레오타드와 같은 의복은 필요 없이 과장된 형태와 선을 제거하며 모든 컬렉션의 근간이 되는 검정 색은 신체를 길어 보이게 하는 전략이기도 하다.²²⁾ C. Klein은 단순함과 세련된 기능주의라는 개념으로 글래머러스(glamorous)하고 도발적인 이미지를 창조하여 90년대의 도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고급 소재,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 정교한 재단 기술, 검정 색과 뉴트럴 컬러를 사용하여 우아하면서도 편안

한 느낌을 주는 뉴욕 커리어 우먼의 세련미를 표현한다. 그는 '심플한 것과 재미없는 것은 다르며, 패션은 단순하면서도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원리를 충실히 따르며, "러플(ruffle)을 입은 여성은 어리석어 보인다"²³⁾고 하여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는 무장식성을 존중했다. 사진6은 이와 같은 디자인의 내적 의미를 표현하는 패션디자인으로 이태리 패션의 정수라 할 수 있는 Max Mara사의 디자인이다. 매우 클래식한 스타일로 통일된 색의 사용으로 그 순수성이 돋보이며, 실용적이고 편안한 스타일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기성복 디자인에 가까워 대중에게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스타일이다. 불필요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디테일은 모두 배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울의 부드러움으로 표현하여 재료가 갖는 순수한 특성을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있다. 색채에 있어서 순수성은 우선 무채색의 사용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최소표현이 추구되었던 60년대에 단순한 형태에 선명한 원색이 유행의 주된 경향이었으며 미니멀리즘 복식이 유행의 한 테마로 등장하는 최근에는 순수한 이미지의 흰색이 유행하기도 한다. 색채에 의한 최소표현은 의복의 한 아이템 내에서 그리고 착장시 각 의복 아이템간의 단일 색의 추구를 의미한다. 최근 한가지 색상만으로 이루어진 컬렉션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사진 6>에서 이러한 단일 색의 추구가 잘 나타난다. 재질에 있어서 최소 표현이라 하면 단순한 재질의 직물로 이루어진 의복을 생각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직물에 있어 과도한 수공예적 장식에서 벗어나 직물표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순한 재질감의 의복으로 전환하였으며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 체제는 이를 더욱 자극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더욱 인체에 밀착되는 얇고 탄력성 있는 소재에 의해 인체의 외곽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와 인체의 자연스러운 곡선과 피부표면을 비쳐 보이게 하는 얇고 투명한 재질에 의한 경우 또한 순수 기능주의의 재질에서의 조형적 특성이 될 수 있다.

<사진 7>은 M. Kors의 디자인으로 위에서 설명한 선과 형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모두 없애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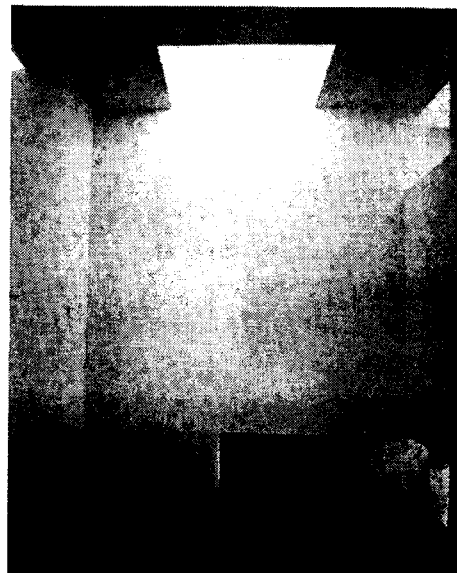


<사진 6> 순수성을 표현하는 클래식한 스타일 The Fashion Book (London: Phaidon Press Limited, 1998), p.309

사용을 극도로 제한한 순수하며 단순한 드레스이다. 복식에 있어서 형이란 바디스(bodice)나 소매, 칼라 등 의복의 부분을 구성하는 형과 패턴을 이루는 형이 있다. 이러한 형에 의한 순수성을 바디스, 소매, 칼라 등 디테일의 형이 완만한 곡선이나 단순한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들 수 있다. 순수성을 표현하는 패턴으로는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패턴이나 현대적 감각의 복식에서 흔히 보이는 스트라이프, 체크 등의 기하학적 패턴이 있다. 이는 사진8의 스페인의 카디스 공립 학교의 건축에서 유사한 조형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건축물은 건물의 측면에는 개구부의 사용을 가능한 한 자제하는 반면 천장이나 바닥과 맞닿는 위아래의 양극단 지점에 개구부를 뚫는 독특한 경향을 보여준다. 이 건물에서는 미니멀리즘 분위기의 실내 공간에 서너 개만의 단순한 개구부가 뚫려 있지만 이것들의 위치에 위상적인 관계를 부여함으로써 하늘과 땅이라는 건물 밖 저쪽 공간으로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 7>과 <사진 8>은 형태와 색상에 있어 상당히 유사한 조형성을 갖는다.



<사진 7> 미니멀리즘을 표현하는 '최소한의' 드레스 Francois Baudot, Fashion (New York: Universe, 1999), p.347



<사진 8> 미니멀리즘 공간, 1995
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 공간』(서울: 시공사, 2000), p.187

3. 캐주얼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에서 일상성은 편안하고, 꾸밈이 없으며, 위장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드러내는 스타일을 의미한다. 이는 20세기 초 기능주의의 기계적, 유기적, 도덕적인 유추를 절충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주의로 미국인의 편안함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캐주얼화 된 라이프 스타일의 영향을 받았다. 기능적인 일상복, 캐주얼웨어의 강조 역시 신분계급의 붕괴, 산업화, 부의 확산 등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현대 복식의 특징이다. 사회 안의 부가 확산되면서 넓은 중류층을 형성하게 되고 이들에게 생활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여가 시간을 위한 각종 스포츠와 위락활동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여가 활동을 위한 복식이 발달하게 되며, 이에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정장보다는 스포티한 캐주얼웨어가 강조되게 된다<사진 9>. 20세기에 들어서 여가 활동을 위한 옷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생겨났고 여가 활동의 그 가치 확산과



<사진 9> 여가활동을 위한 패션디자인
The Fashion Book, op.cit., p.270

보편화로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 따라 일반 디자이너의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기도 한다.²⁴⁾ 그리고 건축 및 제품디자인에 나타난 기능주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Bauhaus의 이상이 미국에서 실현되었다는 사실이다. 도시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백지상태라고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풍부하게 지닌 '신대륙 미국'은 거의 이상

적인 '백지의 캔버스'를 충분히 제공해 주었다. 대불황을 극복한 미국인들은 사람들의 기대를 앞서서 생산하여 시장에 가전제품을 내놓고, 교외에 출현하기 시작한 뉴타운과 잔디로 둘러싸인 하얀 집,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뻗은 고속도로, 그 위를 달리는 신형 자동차 등 미국인들은 이와 같은 꿈의 생활이 쌓아 올릴 '멋진 미래'에 한없이 가슴을 부풀렸다. 다수결의 원리, 캐주얼한 라이프 스타일, 스포츠 매니아, 민주주의, 실용주의, 개척자 정신 등, 이 모든 라이프 스타일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완성된 것들이다.

생활양식이 점차 캐주얼화 되고 T. P. O의 개념이 약화되는 것도 미국 대중문화와 스포츠의 유행과 많은 관련이 있다. 특히, 스포츠의 생활화는 캐주얼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 스포츠웨어의 확산과 발전은 스포츠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가속화되었음은 물론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스포츠나 스포츠웨어에서 받은 영감을 자신의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뒷받침되었다. 92년 NBA(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리그 우승팀인 시카고 불스(Chicago Bulls)의 Michael Jordan을 전속으로 한 나이키 광고는 많은 십대 청소년들에게 아주 효과적이었는데, 이는 만화 영화 스페이스 잼(Space Jam, 1996)에도 출연한 M. Jordan이 단순한 농구선수가 아닌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1999년 여자 테니스 3위에 오른 17세의 Venus Williams 또한 코트를 누비는 긴 다리와 팔 뿐 아니라 흑인들 특유의 구슬을 켤 헤어스타일과 대담한 목걸이, 반지, 등을 드러내는 리복(Reebok)의 원피스 테니스 드레스의 패션 스타일로 인기를 모았다. 이들은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닌 팬들의 우상으로 영화배우나 가수들과 같이 유명인사화 되어, 그들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통해 패션에 스포츠의 영향을 몰고 오는데 큰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 시작해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 스포츠로 길거리 농구, 롤러 블레이드, 스케이트 보드, 스노 보드 등이 있다. 이러한 스포츠의 특징은 도시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새로운 의복의 형태를 창출한다는 점이 있다.

스케이트 보드는 90년대 이후 힙합 문화가 소개되면서 더욱 인기를 얻었다. 이들의 전형적인 의상으로 엉덩이에 가까스로 걸려있는 헐렁한 바지, 박스형 T 셔츠, 어깨에 둘러맨 가방, 스니커 등이 있다. <사진 10>은 Levi's 실버 탭(silver tab) 광고로 캐주얼 기능주의 패션디자이너의 한 경향인 전형적인 스트리트 스포츠 룩을 잘 표현하고 있다. Yoji Yamamoto는 1997년 춘하 컬렉션에서 헐렁한 나일론 팬츠와 남색의 클래식 줄무늬 셔츠, 재킷의 병용, 흰색의 스니커로 남성 캐주얼 기능주의 패션 <사진 11>을 표현했다. 기존 수트의 캐주얼화 경향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모직을 주로 사용하여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수트와 달리 가벼운 나일론 소재를 사용하여 경쾌한 느낌을 주며 구두가 아닌 스니커를 함께 착용한다.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은 남성복사에 있어서 과거와는 사뭇 다른 시대가 도달했다고 보고 직장에서조차 과거보다는 덜 포멀(formal)한 스타일을 착용한다는 사실을 과감하게 수용하여 남성복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휘트니스와 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워크엔드 웨어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제는 '개인적 스타일'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단순히, T 셔츠, 청바지, 양말, 테니스 스니커의 착용만으로도 완벽한 스타일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²⁵⁾



<사진 10> Levi's 광고,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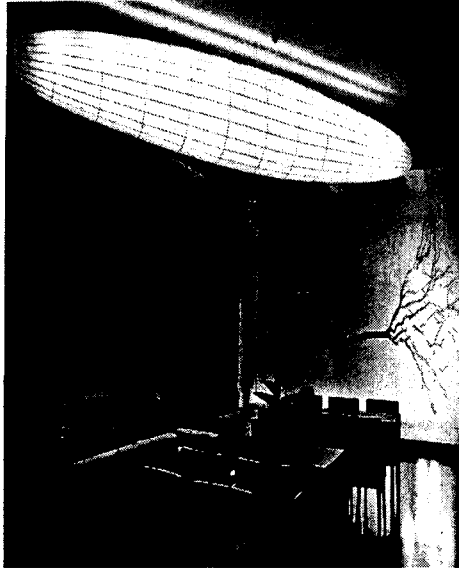


<사진 11> 남성 캐주얼 기능주의 패션
Susan Andrew, Winning The Deign of Sports
(London: Laurence King Publishing, 1998), p.98

4. 상징적 기능주의

상징적 기능주의는 물질적인 기능은 물론 개념적인 기능까지도 포괄하려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기적 유추의 변형이며, 자연적인 흐름과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여 단순하고 순수하고 조용하며 따뜻한 정신의 해방과 정화를 추구하는 기능주의로 자연적인 미를 중시하는 유기적 유추와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도덕적 유추의 절충된 표현이다.

상징성을 표출하는 1990년대 기능주의 패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양식으로 켄 스타일을 꼽을 수 있다. <사진 12>는 건축디자인에서 최근 강하게 나타나는 퓨전적 분위기의 공간으로 일본 전통가옥 실내에서의 다다미와 창 의 직선적 모듈은 규칙적으로 구획화되어 있으며 단순한 선과 면의 분할 및 질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인위적 구성미를 보여준다. 가운데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조명은 유선형의 디자인으로 밝게 해주는 기능은 물론 공간의 가장 확실한 장식 역할을 한다. 켄 스타일의 발생은 1800년대 후반 오리엔탈리즘이 그 발생의 기원



<사진 12> 퓨전적 분위기의 공간
Design, 2000년 2월, p.125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젠 스타일의 모태가 된 것은 1980년대 중반 Issey Miyake, Kansai Yamamoto, Yoji Yamamoto 등 일본 디자이너들이 선보인 동양풍(특히, 일본풍)이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젠 스타일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내면적 양식에서 동양 사상을 기본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1900년대 초 P. Poiret 등의 디자이너들이 제시했던 외형적 양식에만 나타나는 러시아 풍이나 할렘 스타일의 동양풍²⁶⁾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60, 70년대의 인도의 요가나 명상의 영향을 받은 히피 풍으로 대변되는 에스닉(ethnic) 스타일과도 외형적 양식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다. 최근의 스타일은 실루엣이 매우 절제된 형태 선으로 구성되며 모노톤한 색상을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80년대 중반의 일본 디자이너들은 동양적 복식을 서구적으로 표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본질적 특성을 표현하기보다는 이국적이며 감각적인 새로운 조형성에 치중했기 때문에 서구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느낌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절충적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에서 이러한 시도는 서구인들이 동양의 것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갖고 보다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할 수 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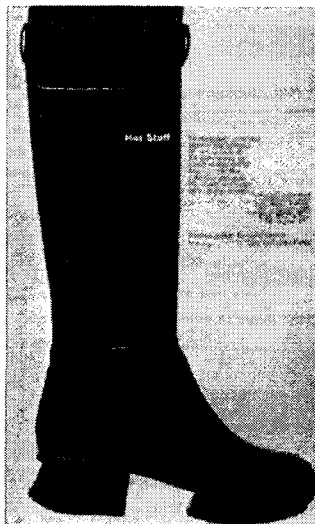
1990년대에 H. Lang, Hussein Chalayan 등의 불교문화권 밖의 디자이너들이 동양에서는 생활화되기까지 한, 젠 사상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시화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작품은 동양의 단순미 이외에도 자연 친화적 스타일과 동양의 실루엣과 디테일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유기적 유추의 기능주의 특성을 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작품에서 사용되는 색상은 과거 일본풍의 디자이너들이 많이 사용하던 흑백의 전형적인 무채색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피부색, 카키, 회색, 어두운 갈색 등의 색상을 사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 염색하지 않은 천연 소재의 사용과 시집처리를 하지 않은 울 폴립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장식이 거의 없는 형태<사진 13>를 취하며 소재 자체의 색감을 살린 천연소재나 인공소재를 사용하더라도 현대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천연소재의 태나 외형을 지녔을 뿐 아니라 섬유 자체의 성능도 개선된 고기능성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부드럽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 13> 정구호의 젠 스타일 컬렉션
<http://cyan.co.kr>

패션디자인에서 자연 친화적 경향의 유기적 유추 이외에 다원적이고 은유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또 다른 경향은 단어 그대로 의복의 기능성을 위한 재료, 형태, 디테일, 색상 등의 디자인 요소를 심미적 이유에서 적용, 발전시킨 상징성의 표현이다. 이는 유기적 유추의 다양성과 도덕적 유추의 합목적성을 절충하여 생성된 기능주의로 획일화된 기능이 아닌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는 기능을 중시하며 기능은 물론 장식의 역할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1990년대 이후 나타나는 상징적 기능주의는 실용적 혹은 실제적인 기능을 위해서가 아닌 상징하기 위해 기능을 과장해서 일부러 내세우는 경향을 띠는데 이러한 경향은 패션디자인에서도 매우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종종 패션디자인에서 기능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디테일은 오직 장식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실용주의적 '신체가방(body bag)'²⁸⁾중의 하나인 H. Lang의 디자인은 벨크로(velcro) 스트랩으로 허리와 왼쪽 다리에 둘러, 도구 벨트나 권총 케이스를 연상시킨다.²⁹⁾ 심지어 포켓 달린 부츠<사진 14>도 디자인되었다. <사진 15>는 I. Mizrahi의 디자인인 노란색 레인코트로 아기를 위한 캐리어(carrier)가 같은 재질로 디자인되어 있다.



<사진 14> 포켓이 달린 부츠
Bazaar, January 1999, p.116



<사진 15> 기능성을 강조한 디자인
Elle, September 1998, p.472

단순하고 명확한 선, 지갑이 불필요한 쌈지, 앞치마(utility apron), 포켓, 지퍼가 응용된 기능적 디자인, 아노락, 조끼, 하이킹 반바지 등 스포츠웨어의 응용, 토글(toggle)³⁰⁾, 플라스틱 클램프, 자석 단추 등 기능적 디테일을 이용한 여밈 등이 상징성을 표현하는 기능주의 패션의 조형적 특성이다.

위에서 살펴본 절충적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1990년대 절충적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의 내적 의미와 조형성

기능주의 내적 의미 조형성		테크노 기능주의	순수 기능주의	캐주얼 기능주의	상징적 기능주의
내적 의미		미래지향성	순수성	인간성 일상성	인간성 다양성
조형성	실루엣 · 선	좁은 형 자유롭고 편안한 실루엣	미니멀리즘의 형태 단순한 형태	단순, 직선적 실루엣 편안한 실루엣	단순한 실루엣과 선 자연적 형태 여백의 미 절제의 미
	디테일	과다장식의 기피 나일론 필링 알루미늄 라이닝 Glo-work(발광체) 퀵트, 패딩	장식의 배제 효율성의 극대화	새로운 액티브 스포츠 웨어에서의 차용.	비장식성 툽스티치 드로스트링, 큰 포켓, 지 퍼, 모자, 벨크로, 토글, 플라스틱 클랩프, 자석 단추, 조끼 가방
	색채	금속성 색상 무채색과 원색의 대비	단색의 사용	다양한 원색의 병용	자연스러운 색 카키, 회색, 어두운 갈색
	재료	네오프린, 라이크라, 네트 직물, 낙하산용 직물, 특 수표면 처리한 스웨이드, 메쉬 등의 합성섬유	스트레치성이 강한 섬유의 사용	면, 캐시미어, 나일론 천연섬유와 합성섬유, 고급섬유와 저급섬유의 믹스 앤 매치	실크, 울 저지 등 천연 섬유, 자연친화적 소재 +하이테크놀로지의 합성섬유
대표적 아이템	모터사이클 팬츠와 재킷, 아노락, 파카	젠 스타일의 드레스	영덩이에 걸친 헐렁한 바지, 카르고 팬츠, 청바 지, 피 재킷, 가죽 잠바, 서프 T 셔츠, 겹으로 드 러난 속옷	놀이용 수트, 점프수트, 롬퍼스, 파카, 판초, 야 구재킷 등	
액세서리	하이테크 샌들과 부츠	사용의 절제	고글, 선글래스, 낡은 스 니커, 굵은 체인 벨트	홀스터 백	
기법	인체공학 디자인의 도입 혹은 모방 새로운 테크놀로지 이용	기능성-편안한 의복스 타일, 신체활동을 돕는 의복(구속의 제거)	단정치 못한 의복 착장 T.P.O 개념의 약화, 스 포츠웨어의 포멀웨어화 남성적, 유니섹스	다양한 닥트 사용 기본 장식의 배제 동양적 디테일 + 서구 적 스타일	
대표적 디자이너	M. Prada H. Lang	D. Karan J. Sander C. Klein	T. Ford T. Hilfiger R. Lauren	H. Lang I. Mizrahi J. Sander	

IV. 결론 및 제언

연구의 결과 1990년대 기능주의는 20세기 초 기
능주의의 기계적 유추, 유기적 유추, 도덕적 유추 3
가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어느 한 부분에
예속되기보다는 이 세 가지 경향을 서로 융합한 특
성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의 기능주의는 20세기

초 융성했던 기계적 유추의 기능주의의 연장선상
에서 이에 변화를 주기 위한 유기적 유추의 기능주
의 경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나타난 하나의 새
로운 양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변화된 절충적 기능주의 대두는
이제까지의 서구적 합리주의로부터 이탈하려는 데
서 그 첫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더 이상 서구적

전통에서는 합리주의로 새로운 세계의 인간과 자연을 통합하는 삶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³¹⁾ 이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과 관련이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의 관계가 단순히 연속이나 단절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현상이다. 모더니즘을 계승, 발전시킨 개념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설명할 때 이러한 논의를 잘 반영하는 양식이 절충적 기능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소외감, 괴리감, 위기감을 극복하고 해결하려는 주체의 흐름을 가지면서 모더니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니멀리즘 안에서 순수 기능주의의 기본 표현 양식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순수 기능주의는 그 표현 양식에서 보다 발전된 새로운 형태의 모더니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절충적 기능주의는 인간의 감성적 사고와 자연의 순수함의 표현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 그 내면적 사상은 인간 중심적 사고를 지닌 유기적 유추의 20세기 기능주의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 20세기 초 기계적 유추의 기능주의는 새 세계의 창조를 위해 옛 질서를 파괴하고자 할 정도로 역사성을 배제했으며 국가적, 지역적, 자연적 양식을 부정하고 세계를 하나로 동일시하는 국제적 양식을 찬성했다. 그러나 1990년대 절충적 기능주의는 다분히 지역적이고, 자연적이며, 독특한 개성마저 지니고 있다. 이는 형식면에서 단순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기계적 유추의 20세기 기능주의와 그 모습을 같이 하지만 인간 내면의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며 동양의 지역적 사상을 담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특히, 90년대 중반부터 하나의 형태에 다양한 문화의 양식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인 복합문화현상인 크로스오버(crossover) 혹은 퓨전(fusion)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절충적 성향을 표현함에 있어서 1990년대 절충적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은 인간 친화적 소재와 하이 테크놀로지에 의한 신소재를 절충하는 방향으로, 동양적인 디테일과 서구적 스타일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셋째, 1990년대 절충적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에서 건축 및 제품디자인과 비교하여 특히, 캐주얼

기능주의가 강하게 나타났다. 패션디자인은 건축 및 제품디자인과는 달리 착용자의 신체와는 떨어져서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디자인으로 이와 관련한 변화를 매우 민감하게 반영한다. 신체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스포츠의 다양한 변화는 유행하는 패션디자인에 즉각적인 영향을 나타내며, 신체의 동선과 편안함과 관련되는 라이프 스타일의 캐주얼화는 패션디자인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패션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은 건축 및 제품디자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섬세한 방향으로의 디자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다.

본 연구는 20세기 말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의 경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흐름을 파악하는데 치중하였으므로 더 나아가 1990년대 절충적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의 4가지 흐름인 테크노 기능주의, 순수 기능주의, 캐주얼 기능주의, 상징적 기능주의 각각에 대하여 그 내적 의미와 조형적 특성에 있어 더욱 심층적인 사례 연구는 다가오는 미래의 패션디자인의 경향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특히, 유기적 유추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의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에 대해 반(反) 기능주의적 입장에서의 패션디자인, 예를 들어 표현주의 패션디자인 등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New York Times*, February 21, 1999.
- 2) 이상은 주로 건축에서 의미하는 '기능'에 관한 고찰이었다. 기능주의가 건축에서부터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므로 건축에서의 기능주의에 대한 정의를 주로 사용한다.
- 3) Mary A. Littrell, "Social and Cultural Analysis of Clothing: Current Research and Methodological Direction", 『한국의류학회지』(1989): 22.
- 4) 김준호, "사회과학 방법론에 있어서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 『제14회 의류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특별강연 II』(1990): 24-26.
- 5) Xenophon, *Memorabilia and Oeconomicus*, E. C. Marchant 역, (London: Heinemann, 1923).

- 6) Ibid., III, VIII, p.10.
- 7) Marcus Vitruvius Pollio, *The Ten Books on Architecture*, Morris Hicky Morgan 역,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14), 제1권, 제III장, p.2.
- 8) Gaius Plinius Secundus, K. *The Elder Pliny's Chapters on the History of Art*, Jex-Blako 역,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896), XXXIV, ii.
- 9) Leon Battista Alberti, *The Architecture of Leon Battista* (London: Thomas Edlin, 1485), I, 서문.
- 10) 페니 스파크, 『20세기의 디자인과 문화』, 이순혁 역,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95), p.69.
- 11) 이는 E. R. de Zurko, 『기능주의 이론의 계보』에 수록된 분류이나, 다른 많은 기능주의학자들의 저서에서도 기계적, 유기적, 도덕적 유추와 관련한 언급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 12) 하지수, "20세기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1, pp. 19-22 의 내용을 요약.
- 13)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서울: 솔 출판사, 1997), p.134.
- 14) 존 네이스비트, 『Global Paradox』, 정성호 역, (서울: 세계일보사, 1994), p.30.
- 15) 일본과 중국의 선 불교
- 16) 조경희,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스트레치 미 연구", 『복식』46 (1999): 67-68.
- 17) 탐험가들이 처음으로 착용한 100퍼센트 폴리에스터 직물인 플리스(fleece)는 '합성의, 있는 그대로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기존의 고전적 스포츠웨어로부터 패션의 신화를 만든 섬유'로 일컬어 진다. Susan Andrew, "The Sportification of Culture", *Winning The Design of Sports* (London: Laurence King Publishing, 1998), p.10.
- 18) 하지수,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룩에 관한 연구", 『복식』50(2) (2000): 18.
- 19) *the New York Times*, January 17 1999.
- 20) 김은덕, "현대패션에 나타난 최소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복식』 23 (1998).
- 21) Gerda Buxbaum,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New York: Prestel, 1999), p.135.
- 22) Ibid.
- 23) Ibid., p.132.
- 24) 이영민,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 미국 스포츠웨어의 전통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 25) Tommy Hilfiger, *All American a Style Book*, (New York: Universe Publishing, 1997), p. viii.
- 26) C. R. Milbank, *New York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1989), pp.78-81.
- 27) 조정미, 김예형,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 양식에 관한 연구", 『복식』 50(6) (2000): 168.
- 28) *the New York Times*, November 22 1998.
- 29) *the New York Times*, November 22 1998.
- 30) 스포츠웨어 따위의 앞자락을 여미는 장식용 막대 모양의 단추
- 31) 자명스님, "미국에서 이는 불교 바람", 문화리뷰, 1999. 8.